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과 평화이론

김 만 수*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너무 단단하고 육중해서
오랜 준비 없이 그것을 삼키면
정신적인 소화불량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오직 다년간의 연구와 숙고로써만
그 단단한 덩어리를 소화시킬 수 있다."
루바스(Jay Luvaas) - 핸들(1996. 391)에서

목 차

1. 머리말
2 전쟁수행이론과 전쟁준비이론
3. 클라우제비츠 이전의 전쟁이론
4.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
5. 클라우제비츠의 평화이론
6. 전쟁천재

1. 머리말

클라우제비츠가 호전주의자인가 평화주의자인가 하는 물음은 100

* 사회학 박사,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여년의 역사를 갖는다.[1] 클라우제비츠가 호전주의자가 아니라 평화주의자라는 설명은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하는 설명을 본다는 것은 드문 편이다. 여기서는「전쟁론」을 토대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에 나타나는 평화의 개념과 평화이론을 살펴보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과 평화이론이 도달하는 귀결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2. 전쟁수행이론과 전쟁준비이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은 전쟁의 수행(遂行)에 관한 이론(전쟁수행이론)과 전쟁의 준비에 관한 이론(전쟁준비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클라우제비츠가 본래의 전쟁이론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쟁수행이론(작전이론)이다.

인간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발명하고 개량하는데, 이와 관련된 활동은 전쟁을 준비하는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전쟁은 본래 두 전쟁당사자가 서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명활동은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싸움과 무기 사이에는 밀접한 상호작용이 존재하지만, 전쟁 자체(싸움)와 전쟁 준비는 명백히 구별되는 다른 활동이다.

전쟁에서 전투력을 직접 사용하는 기술이 좁은 의미의 전쟁술이라면, 넓은 의미의 전쟁술(Kriegskunst, art of war)에는[2] 전투력을

---

1) 하워드(1996 483~488)에 따르면, 클라우제비츠가 호전주의자라는 해석에는 영국의 악의적인 해석이 큰 영향을 끼쳤다 영국은 독일과 1차 세계대전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클라우제비츠를 '피에 굶주린 프로이센주의의 맹신자'이며 '뻔뻔한 군국주의자'로 매도했다 또한 하워드는 1930년대에 나치정부가 클라우제비츠를 독일 민족주의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여 그를 높이 숭상한 것도 클라우제비츠를 오해하게 된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전쟁술(Kriegskunst, art of war)에서 Kunst(art)가 독립적으로 나올 때 이를 예술이

사용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될 것이다. 전자는 전쟁수행(또는 작전, Kriegführung, conduct of war)이라고[3] 할 수 있으며, 후자는 병사들을 징집하여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며 무기를 개발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전자는 전투력을 사용하는 활동이며, 후자는 전투력을 유지하는 활동이다. 전자는 전투이며, 후자는 전투 이외의 활동이다. 전자는 전쟁활동이며, 후자는 전쟁준비활동이다. 전자에 관한 이론이 전쟁수행이론이며, 후자에 관한 이론이 전쟁준비이론이다.[4]

3. 클라우제비츠 이전의 전쟁이론

그런데 클라우제비츠에 따르면, 이전에는 바로 전쟁준비이론을 전쟁이론이라고 이해했다. 예를 들면 무기의 생산이나 군대의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는 전쟁을 준비하는 물질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인데, 이것을 전쟁술(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상관없이)이라고 이해했다. 칼을 잘 만드는 사람은 칼싸움도 잘 한다는 논리다. 이런 의미의 전쟁이론에는 지식과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만 싸움에 필요한 정신과 용기는 들어있지 않았다.

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쟁술은 전쟁기술의 줄임말이니 예술보다는 기술이 더 적절한 말이 될 것이다 그냥 술(術)이라고 쓰는 건 몹시 어색하다 「전쟁론」 번역서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만수(2003) 참조

3) Kriegfuhrung이 전쟁지도(指導)보다는 전쟁수행(遂行)이 더 적절한 번역어가 될 것이라는 이종학(2002b 146)의 지적은 적절하다.

4) 핸들(2000)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수행이론과 전쟁준비이론을 매우 명쾌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핸들(2000)의 2장과 3장을 참고할 것 이 책은 클라우제비츠, 손자, 조미니의 전쟁이론의 내용을 분석하여 전쟁사상을 비교하고 있는데, 클라우제비츠 부분만 봐도 다른 어느 해설서보다 뛰어나다 「전쟁론」의 개념의 분석수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에도 쉬운 편이다 이와 달리, 이종학(2002a)은 세 사람(클라우제비츠, 손자, 조미니)의 이론을 발췌하여 번역해놓은 책이다.

포위공격을 하면서부터 전투에 처음으로 작전이 나타나고 정신적 활동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정신은 아직 그다지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전술(戰術)은 정신활동처럼 보이지만, 군대가 일정한 대오(隊伍)를 갖춰 명령에 따라 기계처럼 이동하면서 벌이는 전투가 많은 정신활동을 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때까지는 전투력을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지휘관의 자질에 맡길 문제이지 이론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전쟁을 더 많이 관찰하면서 전쟁에 관한 원칙을 세우려는 욕구가 활발해졌지만, 이론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의 관찰은 사람들을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의견 충돌로 내몰았다. 의견 충돌은 전쟁에 관한 실증적인 원칙과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을 더욱 부추겼지만, 이런 노력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결코 미리 정해진 코스를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체계라는 것은 주어진 요소들을 일정한 틀에 따라 종합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과 원칙, 전투와 이론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하게 된다 즉 전쟁과 전투를 이론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전쟁이론을 세우려는 사람들은 전쟁이론을 '물질'에만 한정함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확실하고 실증적인 물질만 다루는 전쟁이론은 바로 전쟁준비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준비이론을 전쟁이론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논리다. 예를 들면 수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문제에 속한다. 적과 아군 사이에 다른 모든 요소는 똑같은데 적의 병력이 5만 명이고 아군의 병사가 10만 명이라면, 이변이 없는 한 아군이 그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로써 수적 우위는 법칙성을 띠고 나타나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전투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오로지 물질적인 요소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니 다른

요소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게 된다.

몇 가지 개념을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하여 이론화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시도 역시 실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지(基地)의 개념이 그러하다.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기지, 기지의 크기, 기지의 각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여 이론화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전쟁의 물질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전쟁이론으로 빠질 것이다 다른 이론가에게는 기지 대신에 작전선이나 내선(內線, innere Linien, interior lines)이 핵심개념이었으며 이것으로 모든 전쟁을 이론화했고, 또 다른 이론가는 양(量)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급식문제로 전쟁을 이론화하려고 시도했다. 이론 시도들은 모두 수치(數値)를 원하며 물질적인 측면으로 전쟁을 이론화하려고 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5] 정신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이론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물질적 측면만 다루는 전쟁이론은 물질 이외의 측면을 모두 전쟁이론 밖으로 몰아낸다. 그곳은 규칙성을 뛰어넘는 천재성이 발휘되는 정신의 영역이다. 하지만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 대립하는 전쟁이론은 제대로 된 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이론은 정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려워진다. 건축물을 역학적이며 시각적인 구조만 관찰하면 간단하지만,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정신적 활동을 고려하는 순간부터 건축 활동은 한없이 어려워진다. 전쟁활동은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는 정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물질과 정신을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쟁활동은 위험한 활동인데, 이런 위험한 영역에서 제대로 결단을 내리려면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5) 당시에 이런 실증적·과학적 전쟁이론을 편 대표적인 사람은 빌로(Heinrich von Bulow)와 조미니(Antoine Jomini)다(파레트, 1996 420~421 참조)

바로 정신적인 측면이다! 이런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전쟁에서 병사들의 사기(士氣)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기도 정신력이다! 이런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물질적인 측면만 다루는 전쟁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가? 전쟁에서 정신적인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경험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6]

따라서 주로 물질적인 측면만 다루는 전쟁준비이론을 전쟁수행이론이라고, 나아가 전쟁이론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쟁이론을 세우려면 전쟁준비이론이 아니라 전쟁수행이론을 확립해야 한다.

4.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7]

따라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이론이라고 생각한 것은 바로 전쟁수

---

6) 영미권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다시 진지하게 연구하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 때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의 베트남전쟁이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하워드, 1996 489 참조) 한국전쟁에서는 군부에 대한 정치의 우위성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베트남전쟁에서는 물질적 측면이 아니라 정신적 측면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아롱(1986)은 (불)분명한 정치목적과 군사목표의 설정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어떤 차이를 일으켰는지 잘 서술하고 있다. 「전쟁론」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로는 파레트(1986) 참조 「전쟁론」은 "전쟁에 대한 역사적 분석도 아니고 정치적 이론에 대한 연구도 아니며, 비논리적인 혹은 비정신적인 정치의 여러 가지 법칙을 배제하기 위한 연구이다" (파레트, 1986 174~175)

7)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 제2편에서 자신의 전쟁이론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핸들(1996 405)은 「전쟁론」에서 제2편 전쟁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학(2003)도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 제2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아롱(1996)은 클라우제비츠가 유일하게 완성해놓은 제1편 제1장에 나오는 개념체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종학(2002b 및 2003)에 있는 '전쟁이론'에 관한 논문의 여러 구절은 이미 이풍석(1986a 및 1986b)에 언급되어 있다 풍석(風石)은 이종학의 아호(雅號)다.

행이론이며, 전쟁이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쟁수행이론을 확립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전쟁수행이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쟁활동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활동의 첫 번째 특징은 전쟁활동이 인간의 정신적·심리적 활동이라는 점이다[8] 전쟁활동을 하는 병사 한사람 한사람이 적의 병사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전투를 벌일 뿐이다. 하지만 적의 공격이 잔인해지거나 바로 옆에 있는 동료가 적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적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불타오른다. 증오와 복수심은 인간의 감정으로서 분명히 정신적 특성이다. 전쟁이란 인간의 감정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아군의 전투력 대 적의 전투력의 객관적이며 공평한(?) 대결일 수 없다. 전쟁을 그렇게 보는 전쟁이론은 분명 잘못된 이론이다

또한 전쟁터는 위험이 지배하는 영역인데, 위험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본능적 노력을 낳는다.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용기가 필요하며,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면 공포와 불안이 생길 것이다. 용기, 공포, 불안은 모두 인간의 감정이다. 전투 중에는 지휘관뿐만 아니라 병사들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공포의 기억은 위험한 순간이 끝나도 지속된다. 지휘관은 병사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엄청난 정신적 중압감에 시달린다. 전쟁터에서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쟁활동이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위험이 인간의 감정과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하급지휘관에게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열정도 감정이며, 고급지휘관은 자기 주위의 모든 측면을 두루 살펴

8) 클라우제비츠 이전에도 전쟁에서 용기, 공포, 사기 등의 감정적 측면을 부분적으로 다룬 적은 있다. 하지만 클라우제비츠처럼 청년시절부터 인간의 심리적 요소를 자신의 이론적 작업의 중심적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은 없다(파레트, 1996 422)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질투와 관용, 교만과 겸손, 분노와 감동 등 다양한 감정이 나타난다.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감정적·정신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이르는 방법도 지휘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둘째, 전쟁은 매우 활발한 행동과 반응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상호작용이란 개념상 계획성과 대립된다. 상대방이 아군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미리 과학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은 전쟁에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전쟁터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데 이론이란 개별적인 사례들이 모인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할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예측가능성과 계획성이라는 이론의 성격이 전쟁 자체의 성격과[9] 대립되고 있다.

셋째, 전쟁의 정보와 자료가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도 전쟁의 어려움이자 특징이다. 전쟁에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휘관의 재량과 재능이나 운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불확실성을 체계화하고 재량과 운을 실증적으로 이론화한다는 것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내포한다.

전쟁활동의 이러한 세 가지 특징으로 말미암아 지휘관에게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실증적인 전쟁이론을 제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전쟁에 관한 실증적인 이론을 세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해진다. 결국 재능과 천재성은 법칙성의 밖에 존재하며 이론은 현실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은 교범(敎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전략가들은「전쟁론」의 작전 부분에 초

9)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삼중적(三重的) 성격(맹목성, 우연성, 정치적 종속성) 중에서 정치에 대한 종속성 때문에 전쟁이 이성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전쟁이 이성의 영역에 속하는지 아니면 오성(悟性)의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논의는 이종학(2002c) 참조

점을 맞추어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해하기도 쉽고 긍정적인 교리와 규정에 대한 동경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클라우제비츠의 정신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다(핸들, 1996. 405).[10] 클라우제비츠의 정신은 서구에서는 1차대전까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반면에, 클라우제비츠의 이론과 학설을 철저히 연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여 수용한 것은 오히려 맑스와 엥겔스, 레닌이었다(할베크, 1986b: 285~291).[11]

전쟁이론을 세우려면 위에서 말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위에서 말한 전쟁의 세 가지 특징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지휘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급지휘관에게는 개인적 희생에 대한 용기가 더 많이 필요하며, 고급지휘관에게는 이성적 판단이 매우 크게 요구된다. 전투의 대형과 준비에 관련된 물질적 측면은 하급지휘관이 좀더 정확히 규명할 수 있겠지만, 전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병사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고급지휘관이 맡아야 할 정신적 측면이다.

둘째, 전쟁을 이론으로서 가능하게 하려면 전쟁이론이 어느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는 실증적 교리일 필요는 없다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전쟁의 수단과 목적은 거의 늘 똑같기 때문에 전쟁활동은 관찰할 수 있으며, 바로 이 이성적인 관찰

---

10)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을 헌팅턴의 '문명충돌', 키건의 문화전쟁, 크레벨트의 저강도전쟁과 비교분석한 강진석(2000) 참조 특히 헌팅턴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미국의 백인지배세력의 막연한 불안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문명'을 보존하기 위해 '역사의 종말'(후쿠야마) 이후에도 '가상의 적'과 '악의 축'을 필요로 한다

11) 할베크(1986b)는 지금까지 서구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이 어떻게 수용(이해와 오해)되었는지 많은 참고문헌들을 소개하며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론」을 좀더 깊이 연구하려는 후학들에게 매우 유용한 논문이다

이 전쟁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이론은 문제를 분석적으로 연구하며 모르던 것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객관적 지식이다. 또한 이론이 전쟁에 응용되면 그 이론은 우리를 전쟁에 익숙하게 해준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에 더 많이 익숙해질수록, 이론은 객관적 지식에서 주관적 능력으로 이행한다.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익숙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이론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관찰을 통해서도 이론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쟁이론이 전쟁의 수단과 목적을 구별해주고 수단의 특징과 효과를 설명하며 목적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쟁이론으로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다. 전쟁의 관찰로부터 원칙이 나오고 원칙으로부터 진실이 생긴다면, 전쟁이론은 무엇보다 전쟁을 정확히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 이론은 전쟁에 익숙해지려는 사람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현실과 모순에 빠지지 않는 전쟁이론이 생길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전쟁이론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쟁에 대한 냉철하고 이성적인 관찰과 지휘관의 천재적 능력이다 따라서 전쟁이론의 임무는 불변의 법칙성을 발견하여 이를 모든 전투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의 천재성과 관찰을 통해서 전쟁의 수단과 목적을 모든 전투마다 정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12] 여기에서 전쟁이론이 전쟁의 수단과 목적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술의 수단은 전투력이며 전술의 목적은 전투에서의 승리다. 전술적 수단을 사용할 때는 지형, 시간, 날씨 등을 고려해야 할 텐데,[13]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전술적인 전쟁수행

---

12)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연구를 과학적 주제로 접근하지 않고 전쟁의 본질, 전쟁과 관련된 철학적 문제, 최상의 정치적·전략적 수준부터 작전수준까지 다룸으로써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가져왔다" (핸들, 1996 396)

이론을 세우는데 고려해야 한다. 전술의 목적(승리)은 전략의 수단이 된다. 이 수단을 통해서 전략은 전략의 궁극적 목적인 평화에 도달하려고 한다 전략은 평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 민족, 계절, 기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직접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만이 전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이론이 전쟁활동에 대한 관찰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전쟁이론이 전쟁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뜻한다 이런 전쟁이론은 현실과 논리적 연관성을 가져야 하고 현실을 개념화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이론이 되겠지만 최소한 억지나 궤변에 빠지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는다 예를 들면, 전쟁이론은 화약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 유황(硫黃), 질산칼륨, 구리, 주석에 관한 지식과 이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완성된 무기를 필요로 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전쟁이론은 복잡한 자연과학적 자식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전쟁이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은 매우 단순하다! 지휘관에게 필요한 것도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며 단순한 지식을 통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신력이다.

인간의 정신적 활동은 풍부한 상상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상상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상상력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전쟁의 지휘관에게 필요한 상상력은 전쟁과 관련된 상상력일 것이다 그리고 지휘관의 지위에 따라 필요한 상상력의 수준도 달라질 것이다. 하급지휘관에게는 제한된 수준의 상상력으로도 충분하지만, 고급지휘관에게는

13) 클라우제비츠는「전쟁론」에 시간과 공간에 대해 그다지 많이 기술하지 않았다 넬슨(Harold Nelson)은 이 점에 관해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의 계량적인 요소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걸 싫어했고「전쟁론」에서 시간과 공간을 너무 많이 다루는 것은 그와 같은 변수들이 전쟁연구에 과학적 접근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독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핸들, 1996 384 참조)

수준 높은 상상력이 요구될 것이다.

전쟁이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이 단순하다는 말이 그 지식을 실행하는 능력까지 단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전쟁에 따르는 어려움은 드높은 용기와 수준 높은 이성의 활동을 요구한다. 최고지휘관에게 요구되는 이성의 활동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이성의 활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정신활동일 것이다. 최고지휘관에게 필요한 단순하지만 수준 높은 지식은 사물에 대한 관찰과 연구, 심사숙고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

요는, 지식은 정신으로 넘어가서 지휘관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쟁에서 법칙적 지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 지휘관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디에서나 어느 순간에나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식이 지휘관 자신의 삶과 정신에 완전히 동화되어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결국 전쟁이론은 전략적 목적인 평화를 이끌어내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영역에서 최고지휘관이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5. 클라우제비츠의 평화이론

클라우제비츠가 평화주의자인지 그리고 평화주의자라면 왜 그런지 분명하게 말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전쟁론」에 자신의 평화와 평화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서술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의 평화이론을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려면 그가 「전쟁론」에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남겨놓은 평화의 개념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14]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4) 지금까지 우리말로 (번역)된 글 중에서는 복(1991)의 논의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과

클라우제비츠의 평화 개념은 전쟁과 관련해서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평화가 그냥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뜻하는 건 아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절대전쟁(추상전쟁)과 현실전쟁(제한전쟁)으로 구분하였다.[15] 먼저 절대전쟁에서의 평화를 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아군이 적의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라면 그리고 이 점령이 이루어졌다면 양쪽은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전쟁에서 패배한 쪽에게는 굴복을 의미한다.

절대전쟁에서는 적의 지역을 점령했다고 해도 적이 전쟁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는 한 전쟁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적의 의지를 꺾는다는 것은 적에게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걸 뜻한다. 적에게 나의 의지를 관철시켜 적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면 전쟁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고 이로써 전쟁은 비로소 끝나게 된다. 따라서 절대전쟁에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 전쟁의 종결과 종전(終戰)이 곧 평화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평화는 전쟁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거나 패배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쪽이 완전한 파멸에 이를 때까지 전쟁이 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적의 군대가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아군에게 항복을 해버리면 양쪽이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아군은 적이 완전한 파멸에 이르기 전에 적이

전략을 평화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가장 상세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복(1991)의 3장을 참조할 것 복은 간디나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새로운 지도자(클라우제비츠의 전쟁천재)상을 제안하고 있다.

15) 박상섭(1996 189~201)에 따르면, 18세기까지 (그러니까 프랑스혁명 때까지) 유럽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기본적으로 제한전쟁이었다

아군과 평화조약을 맺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 적이 아군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것이다. 아군이 적의 전투력을 상당히 많이 파괴하거나 적의 지역을 점령하면 적은 스스로 전투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모든 전쟁마다 끝장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희생을 치러야 하거나 힘을 지나치게 많이 소모해야 한다는 것을 적에게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이 전투력을 많이 소모하게 하거나 적 지역을 점령하거나 적을 침략하여 커다란 손실을 끼치거나 적의 손실이 크리라고 예상되는 곳에서 먼저 전투를 개시하거나 적을 피로하게 만드는 방법 등이 있다. 적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것은 적의 물리적 힘과 의지를 고갈시킨다는 걸 뜻한다. 적이 '상처뿐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나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목적을 포기한다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양쪽에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부터 현실전쟁의 개연성이 나온다. 현실전쟁은 적의 상황이 이러하면 할수록 아군은 저렇게 대응한다거나, 적의 전투력이 저러하면 할수록 아군은 이렇게 대응한다는 형태를 띠게 된다. 한쪽이 완전한 파멸에 이를 때까지 전쟁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 현실전쟁에서도 전쟁이 끝난 상태가 바로 평화를 뜻한다.[16]

전쟁의 목적이 달성되어 전쟁의 임무가 끝나면 평화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대규모의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 전쟁에 대한 분석은 전쟁의 궁극적 목표인 평

16) 류재갑(1996: 29~30)은 절대전쟁에서 얻는 평화를 '강압적 평화', 현실전쟁에서 얻는 평화를 '협상적 평화'라고 부른다. 협상적 평화는 본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두 세력의 힘의 균형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다.

화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라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전쟁이란 더 나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핸들 1996: 392).

6. 전쟁천재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직접적인 평화를 쟁취하는 것인데, 위에서 보듯이 현실전쟁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은 무한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고지휘관에게 전략의 목적을 실현할 가능성과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게 열려있다는 걸 뜻한다. 그렇다면 최고지휘관에게는 전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요구되는가? 바로 천재성이다.[17] 천재성은 전쟁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능력과 성향을 뜻하며 전쟁천재에게는 독특한 자질을 갖는 이성과 감성이 요구된다.

반복하면, 전쟁이 물질적 측면에 기반을 두고 기하학이나 수학의 공식처럼 풀어가는 게 아닌 한, 전쟁이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최고지휘관의 천재성과 전쟁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한 정확한 관찰이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이론의 핵심은 '전쟁경험이론'이다! 바로 이 경험을 철학과 밀접하게 조화시킨 것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특징이다(로트펠스, 1986: 29).[18]

전쟁이론이 물질적인 측면에만 한정하면 규칙성과 법칙성에 치중

17) 강진석(2000)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천재를 플라톤의 철인왕과 비교하여 천재적 지도자상을 제시하기 위한 단초를 모색하고 있다.

18) 할베크(1986a)도 「전쟁론」에 들어있는 클라우제비츠의 철학정신을 강조한다

하여 전쟁활동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최고지휘관의 천재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최고지휘관이 뛰어난 천재성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이 주어진 전쟁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져서 커다란 승리를 거두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크게 감동한다.[19] 전쟁의 승리는 이처럼 최고지휘관의 천재성과 연관을 갖게 되며 바로 그 천재의 행동이 규칙성이 되어야 하고 전쟁이론이 되어야 한다.[20]

그렇다면 어떤 인간이 천재성을 갖춘 인간이 될까? 이성의 능력에 따라 인간을 분류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만 감성의 유형에 따라 인간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인간유형이 천재성에 가장 합당한지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인간은 감성적 특성에 따라서 (1)거의 활기가 없는 인간, (2)매우 활발한 인간, (3)매우 민감한 인간, (4)활발하지는 않지만 깊이 생각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마지막의 유형이 전쟁천재에 가장 합당한 인간이라고 보고 있다. 바로 이런 인간유형이 뛰어난 통찰력과 대담한 결단력을 갖춘 전쟁천재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제비츠는 기존의 전쟁이론이 주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쟁에서 전쟁당사자와 최고지휘관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측면을 철학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쟁이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룩하였다. 그렇다면 천재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경험

---

19) 이장훈(1996)은 한국전쟁에서 맥아더가 감행한 인천상륙작전을 그런 천재성의 사례로 보고 있다 하지만 맥아더는 민간정부와 군부의 관계, 제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전쟁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핵무기를 사용해서 얻는 결과는 전쟁당사자 모두의 공멸(共滅)인데, 공멸하고 나서 이를 수 있는 전쟁의 정치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하워드, 1996 490 참조)

20) 강진석(1996 266)은 이를 2차원적 이론이라고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1차원적 이론은 물질적·현상적 측면을 인간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따라서 2차원적 이론은 행동을 위한 직접적인 지침이 될 수 없으며 자기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지휘관의 마음을 교육시켜야 한다

론'이 전쟁에서 '영웅주의'와 갖는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클라우제비츠는 진정 한 두 사람의 영웅에 의해서 전쟁이나 역사의 방향과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인가?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강진석. 1996.「전략의 철학」. 평단문화사.

강진석. 2000. "클라우제비츠의 천재 개념과 플라톤의 철인왕 개념의 비교연구". www.au.ac.kr/report/106

강진석. 2001, "최근의 클라우제비츠 비판 분석", www.au.ac.kr/report/107

김만수 2003. "「전쟁론」 번역서 유감",「군사학연구」 창간호,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1~34쪽

김재선. 1999. "Karl von Clausewitz의 'On Military Genius'에 관한 연구".「중부대학교 논문집」 13집. 425~435쪽.

로트펠스(Hans Rothfels). 1986. "클라우제비츠론". 이풍석 편.「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24~66쪽.

류재갑. 1996. "클라우제비츠와 현대국가안보전략". 강진석.「전략의 철학」. 평단문화사. 25~72쪽.

박상섭. 1996.「근대국가와 전쟁」. 나남출판.

복(Sissela Bok). 1991.「평화를 위한 전략」. 박상섭 역. 인간사랑.

아롱(Raymond Aron). 1986. "클라우제비츠에 있어서의 정치적 전략의 개념". 이풍석 편.「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197~219쪽.

아롱(Raymond Aron). 1996. "클라우제비츠의 개념체계". 강진석.「전략의 철학」. 평단문화사. 447~462쪽.

이장훈 1996. "전쟁의 본질과 지휘관상 -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을 중심으로".「군사논단」 5권 한국군사학회. 225~241쪽.

이종학 편. 2002a.「전략이론이란 무엇인가」. 서라벌군사연구소 출

판부.

이종학. 2002b. "클라우제비츠「전쟁론」재번역에 관한 단상".「군사논단」32권 한국군사학회. 143~149쪽.

이종학. 2002c. "클라우제비츠「전쟁론」의 연구(1) - 전쟁의 삼위일체에 대하여".「군사논단」33권. 한국군사학회. 156~166쪽.

이종학. 2003. "클라우제비츠의「전쟁론」연구(2) - 전쟁이론이란 무엇인가".「군사논단」34권. 한국군사학회. 126~141쪽.

이종학 2004a. 클라우제비츠의「전쟁론」연구(3) - 전쟁의 목적·목표 및 수단에 대하여「군사논단」37권. 한국군사학회. 152~162쪽.

이종학. 2004b. 클라우제비츠의「전쟁론」연구(4) - 공격과 방어의 변증법.「군사논단」39권. 한국군사학회. 179~192쪽.

이풍석. 1986a. "「전쟁론」입문". 이풍석 편.「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1~23쪽.

이풍석. 1986b. "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이풍석 편.「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67~128쪽.

이풍석 편. 1986.「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파레트(Peter Paret). 1986 "클라우제비츠의 정치적 견해". 이풍석 편.「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171~196쪽.

파레트(Peter Paret). 1996 "「전쟁론」의 기원". 강진석「전략의 철학」. 평단문화사. 408~446쪽.

하워드(Michael Howard). 1996. "클라우제비츠의 영향". 강진석「전략의 철학」평단문화사. 463~491쪽.

할베크(Werner Hahlweg). 1986a "클라우제비츠에 있어서의 철학과 이론". 이풍석 편.「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159~170쪽.

할베크(Werner Hahlweg). 1986b. "「전쟁론」의 수용과 그 유포". 이풍석 편.「클라우제비츠의 생애와 사상」. 박영사. 247~305쪽.

핸들(Michael Handel). 1996. "클라우제비츠와 현대전략". 강진석.「전략의 철학」. 평단문화사. 357~407쪽.

핸들(Michael Handel). 2000.「클라우제비츠, 손자 & 조미니」. 박창희 역. 평단문화사.

Carl von Clausewitz. 1993. *On War.* translated by M. Howard/P. Paret. Alfred A. Knopf.

Carl von Clausewitz. 1999. *Vom Kriege.* Ullstein.

Clausewitz's theory of war and peace

Kim, Man-Su

Clausewitz's theory of war can be divided between the theory of conduct of war and the theory of preparations for war, and the theory of war that Clausewitz means, is the theory of conduct of war. But before Clausewitz, men regarded a theory of preparations for war as the theory of war. The theory of preparations for war concerns generally about the material side of war, but not its spiritual aspect.

The activity of war is basically a human spiritual and psychological action. And because the war is dangerous, the anxiety occurs and diverse human feelings, for example courage, have been required. Also the informations in war is normally very uncertain, so an insight of the commander is in war very needed. The Theory of war has to consider this spiritual aspect.

To end the war and to acquire the peace, an excellent talent of commander is necessary. And it is a genius. Men who are difficult to move but have strong feelings, these are the men who are best able to be a genius.

Key words : Clausewitz, theory of war, conduct of war, preparations for war, genius